**[부활 생명으로 살라]**  2020.04.19

마 28:1-10 정성록 목사님

마 28:1-10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 보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다.

롬 8:28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선거에 대한 말씀에 의하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에게 투표하였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정책과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에 반하거든 투표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에 합하거든 그 사람에게 투표하라.
*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에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 코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 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 어느 저명한 힌두교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상만 당했을 뿐 치료를 받은 후에 그리고 인도에 가서 죽었다라고 주장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 달려 갔던 두 여인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부활을 기억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두려워하여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였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 어쩌면 우리도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여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받아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 마 28:5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 28:5

1.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 눅 25:24에 말씀하셨습니다.

눅 24:5

1.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라고 하신다.
*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나가야지만 오는 새벽이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통과되어야만 밝아오는 새벽이었다.
*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새로운 날을 여는 새벽이었다.
* 어찌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났다.
* 하늘과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이 지상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다.
* 이 여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다.
* 마 28:4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 28:4

1.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운 것이다.
*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두려워 떨고 있다. 또한 놀라서 꼼짝 못하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다.
* 그들이 악하게 부정했던 것을 내면적으로 어쩔 수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너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여인들에게 하신다.
* 마 28:8에 여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가 적혀 있다.

마 28:8

1.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있었다.
*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진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
*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땅에 임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 기대감이다.
*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점점 더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다는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
*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살아 계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된다.
* 왜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여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 이제는 너희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내라는 메시지를 품고 그 여인들이 달려간 것이다.
* 마 28:6 말씀에 부활의 증인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마 28:6

1.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격스러운 것은 말씀대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 천사가 말하길 기적에 대해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었다 살아나심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행 2:29-32을 찾아보자.

행 2:29-32

1.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2.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4.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 행 2:30 말씀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 행 2:31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 바울도 베드로같이 선포하였다. 행 13:35-38을 찾아보자.

행 13:35-38

1.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4.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 행 13:38 말씀 중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것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한다.
* 바울은 고전 15:3-4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더 명확하게 말하였다.

고전 15:3-4

1.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2.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고전 15:3 말씀에 있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이다.
*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이다.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가 되어야 한다.
*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건이며,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 이 부활에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는 롬 1:4에 말씀하셨다.

롬 1:4

1.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부활이다.
* 부활절은 왕이 승리하신 날이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신 날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모든 일은 다 옳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여야 할 사건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건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건이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경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부활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롬 4:25 말씀을 찾아보자.

롬 4:25

1.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의로움을 갖지 못하게 된다.

죄와 사망의 청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
*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된다.
*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신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라는 선포요, 의롭다 라는 선포이다.
* 우리는 어떤 상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 사도 바울은 고전 15:20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어떠하여야 할 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전 15:20

1.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과 관계없은 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 그런데 왜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느냐 하면,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 죽음이 끝이 아니다.
*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 그러므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이겨낼 수 없다.
* 바울은 죽음이 뒤엎어 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한다.

고전 15:12-17

1.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3.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4.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5.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6.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 사람은 죽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 신앙인이든 불신자이든 모두 부활하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신앙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나,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 부활은 인생의 끝없는 추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지시킨 사건이며,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준 사건이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전 15:42-44에 말씀하셨다.

고전 15:42-44

1.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2.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3.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을 썩을 것을 심어도 아름다운 것을 걷는다.
* 우리의 이전의 추하고 악한 본성이 있으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걷으시겠다고 하신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
*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 No Cross No Crown.

고전 15:33-34

1.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2.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 고전 15:33 [깨어 의를 행하라]

고전 15:58

1.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 고전 15:58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씀은 교회에서의 봉사 뿐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들어 마시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 우리가 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와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
*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심이 부활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안에 채우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힘들어 하는 영혼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요점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
*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 No Cross No Crown.

기도 제목

*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안에 채우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적용

* 성경 타이핑을 [개역한글]과 더불어 [개역개정]도 실행하여야 겠다.

[개역한글] 1장/일과 [개역개정] 1장/일을 진행하겠다.